

삼성동에 신축중인 삼익건설(주) 본사 사옥 (조감도)

## 꾸준한 기술개발로 기술우위 확보 삼익건설(주)

“흔들리지 않는 34년”

현장에서의 풍부한 경험과 노련한 기술력, 끊임없는 연구와 모방할 수 없는 노하우로 ‘완벽시공’을 실현, 제2도약의 해로 정한 90년대 국내기업중 성장율 1위를 기록한 삼익건설(주) 이창수 사장을 찾았다.

삼익건설이 해외에서 입은 충격에서 벗어나 최근 2년간 혼자 돌아서면서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국내 건설현장에서도 재기의 기반을 다지는 불도저와 해머 소리가 우렁차다. 흑자경영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지기 위한 임직원들의 일치단결에서 우러나오는 멋진 하모니 같기도 하다.

이창수 사장은 “지난 몇년간 보너스를 반환하고 회사를 지켜온 직원들이 재기의 발판이 됐다”고 회고하면서 “그동안 품질향상에 주력했으나 올해부터 사원의 자

질향상운동으로 한단계 발전시켜 삼익의 이미지를 복원하는데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한다. 아닌게 아니라 그런 해석은 충분한 근거를 지니고 있다. 삼익의 1천여 임직원들은 지난 7년간 보너스를 한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 회사측에서 일부러 보너스 지급을 거절한 것은 물론 아니다. 휘청거리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전체 임직원들의 애사심에서 비롯된 전설같은 이야기다. 삼익의 전사원은 지난 7년간 보너스를 자진 반납하면서 회사 살리기 운동에 전력 투구해 왔다.

**70년대 주택건설업계 주도,  
80년대 해외건설부문서  
엄청난 손실**

70년대 명문아파트 재벌로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다 80년대 중

동건설 경기 침체라는 사막의 늪에 빠져 사경을 헤메던 삼익건설은 70년대 후반, 한때는 쿠웨이트·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굵직한 공사를 낚아올리는 기염을 토해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한창 달아올랐다가 급작스럽게 식어버린 77년 중동진출 이후 얼마 전까지 자그마치 1억달러 규모의 미수금을 안은 채 사막전에서 퇴각, 상처뿐인 영광을 안은채 결국 해외 건설업에서 손을 떼게 되어야만 했다.

**인재양성, 기술개발,  
인화단결이라는 추진방안  
제시**

이제 삼익건설은 과거 70년대 주택건설업계의 선두주자였던 옛 명성을 되찾는 기틀을 충분히 마련, 지난해에 전년 대비 2백%가 넘는 매출성장을 이룩하였고, 올



“일등사원이 일등회사를 만들 수 있다며...”, 인재육성을 강조하는 이창수사장

해에는 2천 5백억원 규모의 이월 사업 외에도 약 3천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확정지어놓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는 이창수 사장은 인재양성을 최우선으로 뽑는다. “최고의 사원이 최고의 회사를 만든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사원의 고급화, 정예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기존의 인력은 교육강화와 해외연수등을 통해 더욱 고급인력화하고, 회사의 재목으로 클 수 있는 우수한 인재의 확보를 위해서도 온갖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스스로도 자기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줄것을 당부한다.

또한 꾸준한 기술개발로 건설 각 부문에서 기술우위를 확보하는 것이라며, 내부적인 기술축적을 통한 개발은 물론 구미의 첨단 공법을 계속적으로 도입하고 부수되는 첨단 신소재의 자체생산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

한다. 삼익건설은 6년전부터 ‘화인산업’을 건자재 생산 전문업체로 꾸준히 키워온 것이라든가, 작년 9월 ‘삼익리빙’을 신설한 것은 바로 이러한 기술개발 노력과 그 쾌를 같이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창수 사장은 마지막으로 인화 단결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하며, 아무리 우수한 인재가 많고 뛰어난 기술이 축적되어 있다해도 조직속에 인화가 없다면 그조직은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는 허수아비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종합전산관리시스템구축, 담당자 책임제 도입**

삼익건설은 사업다각화를 위해 지난해 주택관련 계열사인 삼익리빙을 설립했으며 올한 비건설 분야인 제조업과 서비스분야에 진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건설관련 신규사업으로 수저개발, 스포

츠레저등의 사업을 모색하고 있는 이창수 사장은 ‘강변이나 해변에 별장형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해양레저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도약을 위해 삼익건설은 인.재육성의외에 종합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올해의 실천과제로 설정했다. 특히 전산화분야에서는 지난해 전현장의 절반가량에 대해 온라인작업을 끝내고 올해 이를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화인산업과 삼익리빙을 통해 신소재개발에 주력하고 기능공확보를 위해 올해 훈련원을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파트는 설계보다 마감경쟁에서 승부가 가려진다고 말하는 이창수사장은 ‘주택 인테리어 전문업체인 삼익리빙과 기술개발실이 공동대응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삼익리빙은 자체 자재 개발과 함께 외국유명업체와 자재 독점계약을 맺고 있어 인테리어 서비스분야로 점차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개발사업본부 반원익차장에 의하면 ‘주택전문업체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기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기술개발실과 설계실을 확대, 보강해 별도기구로 독립시킬 계획’이라며 이 연구소는 앞으로 경량콘크리트 개발 및 PC사업진출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맡게될 것이라고 한다. 기

**멀티선(Multison) Pipe 공법을 도입, 적용  
난방코일의 혁신과 해외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로  
최적의 설비 시스템을 설계시공."**

전부 유남준과장에 의하면 난방 배관 자재로 강관이나 동관을 사용하던 것을 80년대 초에 멀티선(Multison) Pipe 공법을 독일에서 도입하여 삼익 길동 파크타운에 국내 최초로 적용, 난방코일의 혁신을 이루었으며 지금까지 해외와 국내에서 축적된 기술로 최적의 설비 시스템(중앙집중식)을 일산 APT에 설계 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삼익건설의 대표적인 협력업체로서는 설비 분야에 미화공영외 10개, 소방분야에 한도기공외 6개업체, 자동제어에 금성하니웰외 5개업체 닥트부문에 덕화설비의 5개업체 등으로 현재의 기능공난, 그리고 불량 과다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10여간의 상호 유대관계로 해결하고 있다. 현재 중부지역에 PC공장부지를 몰색중으로 올해안에 착공, 93년부터는 연간 1천가구분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성장을 1위, 국내건설도급  
39위로 도약...**

삼익건설은 기존 호남·중부건설본부외에 울 하반기까지 영남사업본부를 신설하고 이들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엔 200% 외형성장을 기록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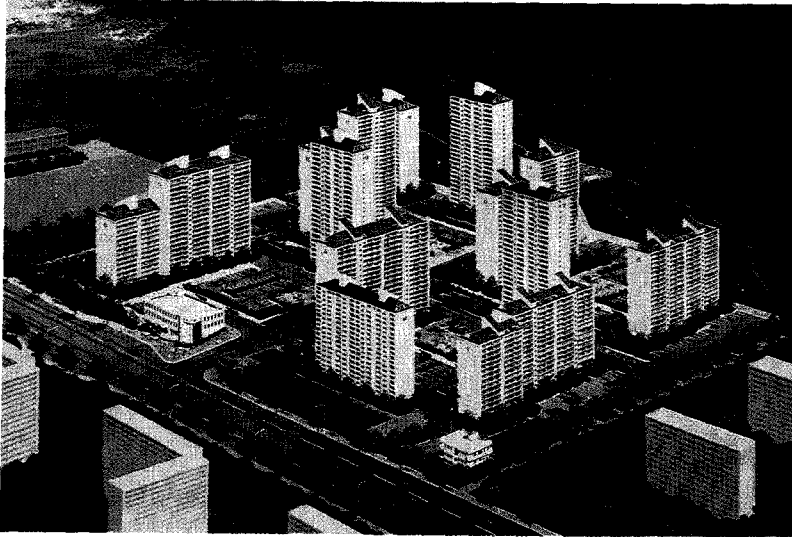
삼익건설은 매출액의 경우 87년 369억원에 불과하던 것이 88년 664억원, 89년 786억원으로 경증 뛰어올랐다.

지난해에는 1천 5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0%에 가까운 외형증가세를 가져왔다. 당기 순이익도 순익은 커녕 85년부터 결손을 내기 시작, 87년과 88년만 해도 연거푸 62억 6천만원과 19억 9천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89년 300만원에 그친 소액의 흑

자로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면서 지난해는 무려 14억 4천만원으로 한해 사이에 흑자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다. 삼익건설측은 올해에 기필코 100억원의 순익을 내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다. 반드시 100억원의 흑자목표에 골인, 해외건설에서 안게 된 70억원 상당의 이월결손금을 제로베이스로 만들고야 말겠다는 다짐이 이창수사장을 비롯 삼익건설 전직원들은 대단한 열의를 보이고 있다. 그래야 배당이 가능한 정상경영을 펼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삼익은 지난 5년간 주주배당을 중단해왔고, 올해말엔 배당에 나설

'91년 건립계획(총4,948세대)

지역	평형	세대수	시기	지역	평형	세대수	시기
부천 중동 신도시	37	222	91.4	일산 신도시	37	188	91.8
	42	206			45	188	
	49	360			63	164	
	57	150			계	540	
	계	938		충청 개신동	23	186	91.8
32	284	32	186				
45	52	46	158				
53	52	계	530				
계	388	서울 중구	28	215	91.9		
39	264		32	209			
49	136		계	424			
계	400	서울 창동빌라	24	168	91.10		
60	32		32	168			
계	32		46	150			
대전 법동	23	420	91.7	계	486	91.10	
	27	210		25	250		
	31	180		32	150		
	계	810		계	400		



산본 신시가지 건설중인 산본삼익APT(조감도)

계획이며 오는 95년까지 매출 5천 억원에 순이익 200억원을 기록하는 굴지의 건설회사로 부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지난해 3천527가구의 주택공급 실적을 올려 주택업계 순위가 89년 12위에서 10위로, 국내 건설도급 랭킹은 89년 54위에서 작년에는 39위로 도약했다.

삼익건설은 올해 주택사업을 지난해 3천 5백 27가구(자체사업 2천 6백 27가구)보다 88% 늘어난 6천 6백 48가구로 잡고, 자체사업으로 4천 6백 39가구를 분양하고 조합주택 2천 9가구를 짓는다는 계획. 주택사업을 근간으로 점차 폐수처리장시설등 수요가 늘고있는 외주분야에도 관심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건설부문은 국내업체가 노동경쟁력을 상실한 만큼 재진출 의사가 없다고 덧붙였다. 삼익건설은 전국에 밀어닥친 아파트붐을 타고 재도약의 비전을 성취해 보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국별 최초 초고층 APT건립(안산시 소재 예술인

APT 20층(85년)), 분단신도시 국내 최초 30층 APT건립(파크타운)등 기업재구축의 실상을 상징적으로 내보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작업이 울들어 스타트한 신사옥 신축공사이다. 서울 삼성동의 노른자위 땅을 시가 150억 원에 매입한 삼익은 지난 2월초 지상 10층 지하 4층짜리 최고급 인텔리전트빌딩 건설에 들어갔다.

내년 5월 신사옥 완공과 함께 현재 오류동의 사무실을 삼성동으로 이전하게 된다. 제 2의 도약해로 정한 90년대의 삼익건설이 본격적인 정상화 작업에 들어감에 귀추가 주목된다.

90년대 삼익 재도약의 원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짓고 그 웅비의 나래를 펴, 우수한 인재와 우수한 기술을 가진 회사가 따뜻한 인화로 단결될 때, 삼익은 반드시 최고의 회사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다가오는 21세기의 주역이 되기 위해 보다 멀리 보고 깊이 생각하며 높은 곳을 지향하는 기상을 갖고 있는 삼익건설주식회사.

## 연혁

- 1957. 11. 1 삼익건설주식회사 설립
- 1968. 6.10 건설업 면허(토목, 건축) 제 229호 취득(건설부장관)
- 1968. 6.21 전기업면허취득(상공부장관)
- 1973. 6.14 대표이사 이창수 취임
- 1975. 7.25 해외건설업 면허(해건 410-1431)취득
- 1977.11.15 전기공사업 면허 제 1종 제 441호 취득
- 1977.12.28 자본금 3억5천만원으로 증자
- 1978. 5. 4 주택건설사업자등록 제250호(서울특별시장)
- 1978. 5. 9 자본금 12억으로 증자
- 1978. 5.13 주택건설업자 제22호 지정(건설부장관)
- 1978. 7. 7 자본금 20억원으로 증자(기업공개)
- 1978. 8.18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 상장
- 1978.10.10 해외건설업(토목)면허 제45호 취득(건설부장관)
- 1979. 2.28 수권자본금 80억원으로 증액
- 1979. 7.20 도로포장공사면허 제74호 취득(건설부장관)
- 1980. 1. 7 수출입업 허가 제800121호(상공부장관)
- 1980. 5.10 본점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20(삼익빌딩)
- 1980. 6.30 자본금 40억원으로 증자
- 1981. 2.28 수권자본금 160억원으로 증액
- 1981. 7.24 자본금 60억원으로 증자
- 1982. 6. 9 자본금 90억원으로 증자
- 1984.11. 5 본점이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6-18(고운빌딩)
- 1987. 4. 1 본점이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47-1
- 1988.10.27 자본금 180억원으로 증자
- 1990. 7.28 자본금 248억 4천만원으로 증자

(임의규기자)